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주영 · 우정희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Ju Young Park · Chung Hee Woo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18 out-of-school adolescents, with data taken from the 5th out-of-school youth panel survey (20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IBM SPSS statistics 24.0 program. In addition,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Results:** Stigma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espectively. Also,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are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It is also expected that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can further decrease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Key Words: Social stigma; Self-concept; Depression; School; Adolesc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1]의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중학생 0.6%(9,961명), 고등학생 1.3%(22,554명)에서 2018년에는 중학생 0.7%(9,764명), 고등학생 1.7%(24,978명)로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 교육과정의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만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차별적 사회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즉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니므로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로는 학업, 친구, 선생님, 부적응 등 학교사유가 54.7%, 취업이나 대안교육이 21.4%,

Corresponding author: Chung Hee Woo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dong, Seo-gu, Daejeon 35365, Korea.
Tel: +82-42-600-8567, Fax: +82-42-600-8555, E-mail: createjane@konyang.ac.kr

Received: Apr 20, 2020 / Revised: May 19, 2020 / Accepted: May 29,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건강, 가정불화, 경제사정 등 개인사정·가정상황이 14.2%, 문제행동이 9.7%로 나타났다[2]. 대안교육과 같은 학업이 보장된 결정이 아닌 학교가 근본적 사유이면서 자발적으로 학업 중단을 선택한 경우와 질병,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는 정규교육을 대체할 대안이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경우 특별한 정신건강 측면의 보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 불면, 신체화 증상 등의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31명의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연구[4]에서 응답자 모두 자신의 처지에서 우울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31명의 청소년 가운데 5명이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 시기의 우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질병특성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5,6]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건강 중재와 더불어 중재에 앞서 정신건강 중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 학교 밖에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해 그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속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7].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나 또래와의 갈등과 단절, 진로 찾기 어려움, 의욕상실, 구직의 어려움을 느끼기 보다는 그들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 무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8], 사회와 주위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편견인 사회적 낙인감을 중간정도 이상으로 느끼고 있다[9]. 사회적 낙인은 소수집단과 취약계층에서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9-11]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12]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감은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응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13]. 취약계층인 시설보호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경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으며[14]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변화와 도전이 있는 개별적 삶 속에서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처하는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이다[17]. 이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은 과업수행과 적응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1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낮게 나타났다[18]. 또한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높은 자아탄력성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의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는 양상[19]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고려했을 때[20] 자아탄력성 역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이 가능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해 봄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개인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찾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수를 통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소외된 취약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년 주기로 총 5회에 걸쳐 진행 된 조사 중 최근 2019년에 발표된 제 5차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밟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77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5개년에 걸쳐 추적하는 1:1 대면조사 패널이다.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해당 기간에 중단했다가 복고한 청소년도 포함된다. 표집방법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등에서 제공한 개인 명부를 활용한 패널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부족한 패널은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직업훈련기관, 상담복지센터, 스노우볼링, 웹 홍보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2017년 5월 22일에서 7월 12일까지 조사에 응답한 318명(1차 구축 패널 대비 41.0%) 전수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윤리적 고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자료 처리과정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정을 준수하고 K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연구승인(No. ***-2020-044-01)을 받은 이후 2020년 3월 25일부터 진행하였다.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진로계획유무, 심리상담 경험자 중 우울,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상담경험, 거주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가정 경제수준의 7문항으로 구성된다.

2) 사회적 낙인감(Social stigma)

사회적 낙인감은 Harvey (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Ju (2002)가 번안하고 Bae등(2010)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Choi, Mo와 Lee (2012)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4)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Yoo와 Shim (200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5) 우울(Depression)

우울은 Lee 등(2011)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모두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짐으로써 각 변인들은 정규 분포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 확인을 위하여 Sobel test 정규성 가정에 따른 검증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전체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경로를 볼 수 있는 SPSS Process Macro (3.1 version)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2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63±1.16세이며 22세 112명(35.2%), 21세 85명(26.7%), 23세 68명(21.4%), 20세 28명(8.8%), 19세 15명(4.7%), 24세 7명(2.2%), 18세 3명(0.9%) 순으로 많았다. 남자가 167명(52.5%)으로 여자 151명(47.5%) 보다 많았고, 진로계획(정규학교, 대안학교, 유학, 취업, 창업, 아르바이트, 가업운영 등)이 있는 경우가 237명(74.5%), 심리상담 경험자 101명 중 우울,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로 상담한 대상자가 73명(72.3%), 거주형태로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226명(71.1%)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195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하지 못한 편 66명(20.8%), 매우 건강한 편 44명(13.8%),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 13명(4.1%)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을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13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이하 122명(38.4%), 보통 이상 62명(19.5%)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의 평균평점은 4점 만점 중 1.98±0.45점, 자아존중감의 평균평점은 4만점 중 2.97±0.50점,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은 4점 만점 중 2.77±0.54점, 우울은 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8)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18	3 (1.0)
	19	15 (4.7)
	20	28 (8.8)
	21	85 (26.7)
	22	112 (35.2)
	23	68 (21.4)
	24	7 (2.2)
		21.63±1.16
Gender	Man	167 (52.5)
	Woman	151 (47.5)
Career planning	Yes	237 (74.5)
	No	81 (25.5)
Experienc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Yes	101 (100)
	Emotional problems	73 (72.3)
	The others	28 (27.7)
Residential types	Living with one's parents	226 (71.1)
	The others	92 (28.9)
Perceived health status	Not at all healthy	13 (4.1)
	Not very healthy	66 (20.8)
	Healthy	195 (61.3)
	Very healthy	44 (13.8)
Perceived economic status	Below the average	122 (38.4)
	Average	134 (42.1)
	Above the average	62 (19.5)

평점은 4점 만점 중 2.07±0.59점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우울 간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감($r=.4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r=-.54, p<.001$), 자아탄력성($r=-.55, p<.001$)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과정으로 독립변수가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eta=-.42, p<.001$). 2단

제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eta = .49, p < .001$). 최종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정결과, 사회적 낙인감($\beta = .32, p < .001$)과 자아존중감($\beta = -.41, p < .001$)은 우울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eta = .32$)가 2단계 회귀계수($\beta = .49$)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설명력은 37%였다(Table 4).

대상자들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11$ 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N=318)

Variables	Tools	M±SD	Min	Max	Range
Social stigma	X1 X2 X3	1.98±0.45	1.00	3.13	1~4
Self-esteem	X4	2.97±0.50	1.00	4.00	1~4
Ego-resiliency	X5 X6	2.77±0.54	1.00	4.00	1~4
Depression	X7	2.07±0.59	1.00	4.00	1~4

X1=Harvey R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01;14(2):174-189; X2=Ju GO. A study of the perceptions of the career barriers of adolescent school dropou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2. p. 1-110; X3=Bae JM, Jeong IJ, Kim BG, Kim YW. Development independent living supporting models for disadvantaged youth. 2010 Research Report. Sejong City: Korean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10 December. Report No.: 157; X4=Choi IJ, Mo, SH, Lee SY.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s II. 2012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Youth Policy Institute, 2012 December. Report No.: 12-R15; X5=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X6=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16(4):189-206; X7=Lee KS, Bak HJ, Lee JW, Kim, JY, Kim, HJ, Han, YG. Korea's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Project Report, Sejong City: Korean Youth Policy Institute, 2011 December. Report No.: 11-R10.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18)

Variables	Social stigma	Self-esteem	Ego-resiliency
	r (p)	r (p)	r (p)
Self-esteem	-.42 (< .001)		
Ego-resiliency	-.34 (< .001)	.64 (< .001)	
Depression	.49 (< .001)	-.54 (< .001)	-.55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N=318)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Adj. R ²	R ²	F	p
Step 1	Social stigma → Self-esteem	-.48	.06	-.42	-8.32	< .001	.18	.18	69.14	< .001
Step 2	Social stigma → Depression	.62	.06	.49	9.96	< .001	.24	.24	98.96	< .001
Step 3	Social stigma → Depression	.40	.06	.32	6.43	< .001	.37	.37	93.77	< .001
	Self-esteem → Depression	-.46	.06	-.41	-8.23	< .001				
Step 1	Social stigma → Ego-resiliency	-.40	.06	-.34	-6.36	< .001	.11	.11	40.41	< .001
Step 2	Social stigma → Depression	.62	.06	.49	9.95	.001	.24	.24	98.96	< .001
Step 3	Social stigma → Depression	.43	.06	.34	7.41	.001	.41	.41	108.96	< .001
	Ego-resiliency → Depression	-.46	.05	-.44	-9.53	.001				

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N=318)

Mediation path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Social stigma	→	Self-esteem	→	Depression	-.11	.04	.04	.20
Social stigma	→	Ego-resiliency	→	Depression	-.14	.04	-.07	.21

Boot.=Bootstrapping;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2)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과정으로 독립변수가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eta = -.34, p < .001$). 2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 = .49, p = .001$). 최종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사회적 낙인감($\beta = .34, p = .001$)과 자아탄력성($\beta = -.44, p = .001$)은 우울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계수($\beta = .34$)가 2단계 회귀계수($\beta = .49$)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설명력은 41%였다(Table 4).

대상자들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14$ 였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5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은 4점 만점 중 1.98점 수준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1차년도에서 5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궤적에 대한 연구[22]에서 1차년도 대비 표본유지율 55% 이상을 유지하여 매년 반복 측정되어 나온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낙인은 시간이 흘러도 청소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낙인 대상을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심리·사회적으로 이해가 요구되는 대상으로써 정신건강 측면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중 2.97점이었다. 선행연구[22]의 2.9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장애를 낮게 지각하도록 하고 진로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23]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므로[24]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 중 2.77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청소년 2,0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5] 2.89점과 잠재 성장모형 기반 학교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26] 2.95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초기에만 학교적응에 유의한 반면,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므로[26]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 때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환경적 변인에 개인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추가될 때 더 많은 설명력이 나타났으므로[28]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노출될 때 적응과 스트레스 등의 반응은 개인의 자아탄력성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우울은 4점 만점 중 2.07점이었다. 선행연구[22]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4차년도 2.08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와 진로탐색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므로[23] 특히 사회 진출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장애의 원인 탐색과 함께 심리적 요인인 우울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우울에 사회적 낙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낙인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우울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낙인감[9,10], 자아존중감[9,10], 자아탄력성[18,25,28]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업중단을 결정한 청소년에 있어 우울은 단순히 개인의 요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분위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더라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의 변화가 우울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며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던 결과[29]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학대경험이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정서문제 정도가 달라졌던 결과[30]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예방을 위해 사회적 낙인감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낙인감을 경험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자기존중감이 높아진다면 우울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낙인감과 함께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적 영향과 동시에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10]와 사회적 낙인감은 용서와 상호작용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14]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주요 영향 요인이며[28], 자아개념으로 정의되는 유사개념인 자기조절력이 청소년이 겪는 거의 모든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완충효과가 나타난 결과[20]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위축을 통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8]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변수에 대한 이중매개 효과검증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부정적

으로 인식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탄력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이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 상황에서 모든 청소년이 적응에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이 보유한 개인적·환경적 대처자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27]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아탄력성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특히 우울에 대한 선별검사와 개인이 보유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예방적 중재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보건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포함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 5차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자가보고식으로 측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경험을 객관적이거나 심층적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연구 및 다층적인 방법을 통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School dropout rate [Internet]. Seoul: Author; 2011 [cited 2018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

- cd=4149&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2. Yoon CK, Sung YS, Choi HI, Yu SR, Kim KH. A study on the customized measures each performance channel of out-of-school juvenileII. 2017 Research Report. Sejong C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December. Report No.: 17-R14.
 3. Cho HC, Hong D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of students who have dropped out of formal educ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7;28(2):35-61. <https://doi.org/10.14816/sky.2017.28.2.35>
 4. Sung YS. A study on the customized measures each performance channel of out-of-school juvenileI: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formance channel of out-of-school juvenile. 2016 Research Report. Sejong C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6 December. Report No.: 16-R16-1.
 5. Park EO, Sohn SY. The relating factors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09;22:85-95.
 6. Park HS, Noh JS, Bae SY, Choi MS, Ko DS, Park J.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Korean middle school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0;23(1):19-28.
 7. Lee JY. Convergent factors affecting problem behaviors in out-of-school adolescent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10):333-342. <https://doi.org/10.14400/JDC.2018.16.10.333>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Survey on out-of-school youth. Research Report. Sejong Ci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December. Report No.: 2018-19.
 9. Park DJ, Kim NY.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2019;5(3):71-87. <https://doi.org/10.36697/skya.2019.5.3.71>
 10. Park BS.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mong youth after school dropout: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9; 62:81-106. <https://doi.org/10.17997/SWRY.62.1.4>
 11. Kim MS. Career barriers and career optimism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tigma an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mong school dropout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21):1029-105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1.1029>
 12. Feldman DL, Smith AT, Waxman BL. *Why we drop out: understanding and disrupting student pathways to leaving school*.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2017. p. 1-160.
 13.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p. 1-319.
 14. Kim JS, Shin HS, Moon HJ. The effect of the daily hassles, self-esteem, public stigma and internalized shame to resilience of adolescence in institutional car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orgivenes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14; 12(3):63-74.
 15. Jung HJ. The effect of perceived stigma on self-esteem and social adaptation among out-of-school youth [master's thesis]. Seoul: Myongji University; 2014. p. 1-69.
 16. Park OJ, Kim HK.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on self-respect,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8;23(1): 3-24. <https://doi.org/10.21321/jfr.23.1.3>
 17. Jeong YW, Kim JA. A concept analysis of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6):644-655. <https://doi.org/10.7475/kjan.2015.27.6.644>
 18. Kim WY, Seo BG, Kim KS.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ego resilience, and social withdrawal on depression among Korean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2017;51:41-69. <https://doi.org/10.17854/ffyc.2017.07.51.41>
 19. Yoon SK, Lee C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9;10(10):2917-2922.
 20. Lee JS, Lee BJ, Oh YJ. The buffering effects of self-maste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9;47(1):75-83.
 21. Hayes A.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2013. p. 1-507.
 22. Choi JE, Lee JW, Jeong DB, Lee HN, Kim HK. Psychosocial trajectories in school dropout adolescents: Differences by emerging adulthood adjustment statu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0;33(1):37-52. <https://doi.org/10.35574/KJDP.2020.3.33.1.37>
 23. Sim HA.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out-of-school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529-55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529>
 24. Kim YA, Kim SH.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outside school on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2018;52:53-74.
 25. Yu JH, Yoo HS.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8;19(1):89-113. <https://doi.org/10.15753/aje.2018.03.19.1.89>
 26. Kim SH. The effects of adolescent's individual factors, parental factors, friend factors, and community factors on school adaptation development trajectory [dissertation]. Seoul: Kyonggi University; 2018. p. 1-118.
 27. Kim HJ, Yang MS.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23-34.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
28. Kim EG. Relations of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health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7;30(2):174-180. <https://doi.org/10.15434/kssh.2017.30.2.174>
29. Cho YY, Bae HJ, Chung HH.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choo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019;67(4): 673-704. <https://doi.org/10.25152/ser.2019.67.4.673>
30. Kim SH, Kim HM. Self-respect moderating effects on adolescents with emotional problems due to neglect and abusiv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 18(2):26-36. <https://doi.org/10.5392/JKCA.2018.18.02.026>